



베트남 호치민
12월 보고서

Contents

1

일정 개요

2

활동내용

3

에세이

1

12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오전 LDC Primary School/오후 홍안유치원	홍안 유치원	홍안 유치원	UTE Korea Center	
	Thien Phuoc center	LDC Primary School	홍안 유치원	홍안 유치원	UTE Korea Center	
	Thien Phuoc center	LDC Primary School	홍안 유치원	홍안 유치원	UTE Korea Center	
	Thien Phuoc center	홍안 유치원	홍안 유치원	Hope School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Thien 간사님의 대가족과 식사	
	Thien Phuoc center	LDC Primary School	홍안 유치원	UTE Korea Center		



1. UTE Korea center
2. 흥안 유치원
3.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4. Thien Phuoc center

1. UTE Korea center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는 Korea center에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우리와 만나는 시간만큼은 딱딱한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재밌고 흥미롭게 한국과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였다.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임도 같이하고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행히 학생들도 응원해주고 우리를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활동내용

2. 흥안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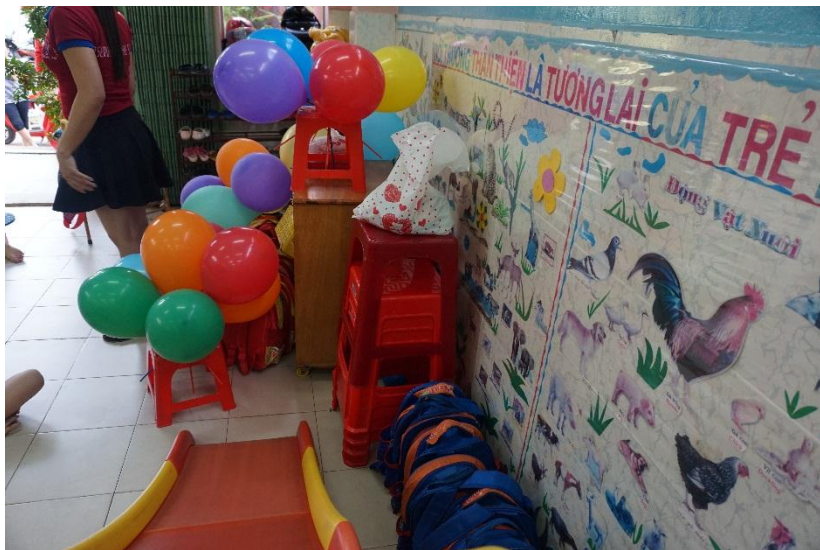


어린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맨 처음 흥안 유치원에 갔을 때 우리는 적응하는데 바빴다. 차츰 유치원에 가는게 익숙해지자 아이들과 뭔가 재미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가르쳐주었고 아침마다 울동을 같이 찼다.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방안을 공으로 가득 채워 뛰어 놀수 있게 하는 볼룸을 기획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다려진다.



활동내용

2. 흥안 유치원



활동내용

2. 흥안 유치원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완성한 트리

3.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게시판 만들기가 끝난 후,
12월에는 체육 활동과 영어 수업을 진행했
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 둘이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우리의 걱정과
는 다르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순
조롭게 진행되었다.

+ 아이들의 수가 많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수업준비를 철저히 해야했다.

3. Le Dinh Chinh Primary School



-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와 놀기 시작한다.
우리도, 아이들도 가장 즐거운 시간.



괴롭힘 당하는 희주 1



괴롭힘 당하는 희주 2

4. Thien Phuoc center

장애 아동 센터에서 오전에는 주로 아이들 마사지와 점심 식사를 돕는다.

처음 왔을 때는 어색하고, 어렵기만 하던 마사지 활동이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춰가며 할 수 있게 되었다.



4. Thien Phuoc center



- 봉사자 Quyen



- 이 곳에서 일하고 있는 My

오후 시간마다 보조로 참여하고 있는 수업
 아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색칠 공부를 하거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 때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아이들이 캐롤을 배우고 있었다. 익숙한 멜로디인데 베트남어라서 우리도 같이 배웠다. Thien Phuoc center에도 엄청 큰 트리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매달려 있는 장식들이 아이들이 오리고 붙여 만든 색종이였다. 서툴지만 모두 한 데 모이니 근사한 장식이 되어 있었다. 다음 번엔 어떤 수업이 있을지 기대가 된다.

3
개인별 어세이



12월
희주의 이야기

아마 베트남에 오고나서 가장 바쁜 한 달이었던 것 같다. 일정상 한 달 내 내 활동에 집중했는데, 그만큼 다른 생각이나 걱정없이 내가 하고있는 활동, 만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곳에서의 생활은 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어색함이나 불편함도 느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끔은 굉장히 소소한 일에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12월
슬빈이의 이야기

침대 때부터 나는 금을 찾아다녔지
모든 산골짜기 개울마다
내가 파헤친 모래는
사막이 되고도 남았어
하지만 아무 금속도 발견하지 못했어
단지 구리 동전 몇 개와
돌멩이, 반짝이는 뱀조각, 잡동사니뿐
왔던 것처럼 나는 떠날 거야
그러나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니었어
비록 내 두 손 사이로 모래는 빠져나갔지만
모래가 내게 준 끝없는 기쁨이 있었으니
한번 시도해 본다는 것
-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 <사금>



😊 Bye 😊